

생명의 말씀



김덕영 목사
• 서울중앙지방회 회장
• 진리교회 담임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

약 5:15-18

만제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다가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문을 열고 비를 내려 주어 열매가 맺게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였기 때문에 하늘의 보좌를 움직여 비를 오게도 했고 오지 않게도 했으며 죽은 사람을 살리기도 한 것입니다.

1.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본문에서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로워지려면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신뢰로써 드리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복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할 죄란 결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죄를 회개하여야지만 의인이 될 수 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본문 15-16절을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

든지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병이나 기타 어려운 문제 해결 받기를 원하면 기도를 주는 사람도 회개해야 하고 기도받는 사람도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회개하고 죄를 버리는 기도가 힘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응답 받기 전에 먼저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있는 죄악된 생각을 버려야만 위력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의인이 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가 위력이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고집을 부리며 부르짖어 봐야 소용이 없고 내 양상에 거역하는 것을 자꾸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믿음은 세 가지의 요소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진리에 대한 지식과 진리에 대한 동의, 그리고 진리에 대한 신뢰를 의미합니다. 언제나 참다운 신앙에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요소를 중 어느 하나를 떠나서

는 믿음에 대해 생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신앙이란 단순히 진리의 지적인 삶이나 진리에 대한 지적인 인정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과 구원을 위해서 행하신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는 위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는 기도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따라 하는 기도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기도는 자기의 욕심을 따라하는 주관적인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크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3. 믿음으로 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마음 속에 의심을 품고 하는 기도는 힘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도 받을 수 없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로써 시간과 정력을 허비하는 아무 쓸모없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구할 것을 구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여 자신이 무엇

을 구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 속에 확신을 가지고 하는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간절하게 할 때 힘이 있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선택하거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밤을 새워가며 기도했습니다. 특히 공생애를 앞두고는 40일이나 금식하며 기도하셨고, 십자가를 앞에 두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는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적 생활의 호흡인 동시에 유일의 무기로써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위로와 능력을 받아 이 세상과 마귀를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 주님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회개하여 의인이 되어 기도를 해야 할 것이며,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좇는 기도를 드려야 하며, 합심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드릴 때 역사하는 힘이 많은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위대한 일을 하고 승리하는 비결임을 기억하여 역사하는 힘이 많은 간구를 구하지 못하고 중언부언하여 자신이 무엇

동정

한교총 김태영 회장 총리 강력규탄



한국교회총연합(공동대표회장 김태영, 류정호, 문수석) 목사는 지난 3월 25일 성명을 내고 “총리는 교회에 대한 공권력 행사와 불공정한 행정지도를 사하고, 취소하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교총은 “전국 6만여 교회 중에서 집단감염을 통한 확진자 발생은 소수 포함 10여 건 이하에 불과하다”고 했다.

한국교회에 억압 중단촉구



한국연(회장 권태진 목사)은 최근 성명을 통해 “한국교회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이전부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이고 자발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런데도 총리는 특별담화를 통해 ‘교회폐쇄, 예배금지, 구상권 청구’ 등 일에 답을 수 없는 용어로 한국교회를 겁박했다.”며 목과 과할 수 없다고 했다.

이정훈 교수 김용민 씨 분쟁 비판



이정훈 교수(열정채연구원장)가 지난 4월 2일 본인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교회가 조심해야 할 선거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평화나무의 김용민 씨가 분쟁을 만들고 있다. 선거운동기간 전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설교를 하신 목사님들에 대해 리스트를 만들어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는 엄포를 놓은 것을 비판한다”고 했다.

한남대, 대면수업 4월 27일 부터



한남대학교(총장 이광섭)는 대면 수업 개시일을 4월 13일에서 4월 27일로 추가 연기한다고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 추세가 지속되고, 국가적으로 초·중·고 오프라인 개학이 연기됨에 따른 것이다. 또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 준하는 이번 학기에 한해 중간고사를 실시하지 않는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기독교 예배를 저지하기에 안달이 난 의원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일부 국회의원들이 기독교를 압박하기 위한 법안을 하나 내 놓았다.

지난 3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여기에 보면, 현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제3항을 추가하는 식인데, 그 신설 조항에 구상권(尙權)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 세 금으로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방역과 질병 예방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국가가 국민들에게 비용을 청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사유로 인하여 감염병이 확산된 경우, 그 조치를 위반한 자에게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못 박고 있다.

동법 제49조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조치로 집회, 제례, 또는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의 부담으로 한자를 치료하거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에 구상권을 청구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한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법률 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용내용”을 보면, 기독교의 “집회”를 겨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입법취지를 자세히 살펴보자. ‘최근 코로나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확산으로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가 취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가 이를 위반하여 집회 등을 강행하고, 이로 인하여 감염증을 확산시켜 정부의 방역망을 무너트리는 것은 물론, 치료 및 방역에 따른 추가 비용까지 발생시키고 있으나 처벌은 경미한 상황임’ 이에 조치를 위반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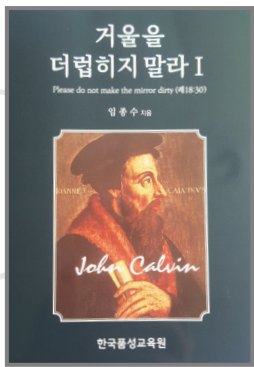
여 감염증이 확산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치 위반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이라고 한다.

여기에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49조에서는 14가지 조치할 항목을 두고 있는데,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을 차단하는 것, ‘홍행’ ‘집회’ ‘제례’ ‘집합’을 금지하는 것, 건강검진·시체 해부 검안을 실시하는 것,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을 폐기하는 것, 인수공통감염병 살 처분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방 조치를 하는 것, 감염병 매개체가 되는 물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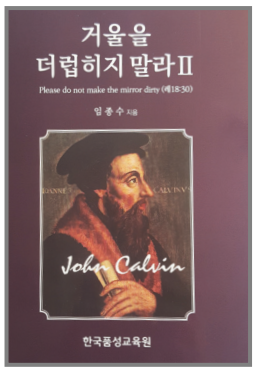
폐기·소각, 운송수단에 의료진 파견과 예방 시설 설치, 공동위생에 대한 소독,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일정한 지역에서의 어로와 수양금지, 감염병 매개의 숙주가 되는 동물류 포획 금지 등이 들어 있다.

다른 조항은 그렇다 하더라도 분명히 제 49조 제1항, 2호에서 금지하는 것은 ‘집회’ 뿐만 아니라, ‘홍행’ ‘집회’ ‘제례’ ‘집합’ 사항을 두고 있지만, 개정되는 법률의 “제안 이유”에서는 기독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집회’ 조항만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그 개정의 의도가 분명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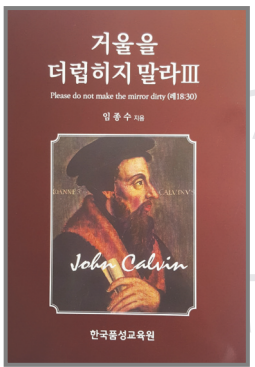
믿음은 구원으로 인도하고 품성은 행복과 성공으로 인도한다



제1권 품성과 비슷한 덕목인 성격, 덕성, 인격, 개성을 바꿀 수 있는 어떻게 개발하였는가? 이조 500년 유교와 고려 500년 불교가 만들어낸 윤리 도덕이 무엇인가? 기독교의 윤리부분 7가지와 자기 계발의 부분에 필요한 10가지를 논하였다.



제2권 대인관계 부문 10가지와 신사적인 성도가 되기 위한 품성 4가지와 문제해결을 하기 위한 품성과 더 좋은 것과 가장 좋은 품성이 무엇인가를 논하였다.



제3권 부정적인 품성 6가지와 영적전쟁의 품성 10가지와 신자가 물리쳐야 할 세력들 즉 점과 굿, 자살, 인종차별과 이단척결을 논하였고, 올바른 생활을 위한 실천분야 5가지를 논하였다. 만약 이 책을 매일 한 과씩 훈련한다면 훌륭한 신자가 될 것이다. 곧 새 언약과 품성과 자유의 대 헌장 두 권이 출판 될 것이다.

품성은 성공과 행복의 열쇠이다. 품성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일을 하고자 하는 내적 동기이다.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는 영적인 면만 강조하고 육체를 가진 인간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시하여 삶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철야 기도를 마치고 귀가하면서 남의 발에 고추를 따가는 생활이 그 대표적인 이야기이다. 그래서 저자가 예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영적훈련을 해야 하겠다는 마음으로 품성에 관한 책자를 7권 출판하였다. 최근에 출판된 ‘거울을 더럽히지 말라’ 1,2,3권을 소개한다.

강의 안내

각 교회에서 시행되는 각종 중직자 세미나 각 지역에 거주하는 목회자들의 소 구름

책 구입처

cslim4305@gmail.com 임종수 원장
재무담당 이미란 이사 010-8618-9982
계좌번호 농협 351-0771-1742-13
한국 품성교육원